

# 바로크 고음악 속으로...장중한 멜로디, 공연장을 채우다

## 리뷰 - '제35회 이견음악회'

과연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멋지게 차려입은 남녀가 웅장한 계단을 내려오는 듯하다"고 묘사할 법하다. 바흐 '관현악 모음곡 1번 C장조, BWV 1066', 장대한 서곡이 흐르자 계단 위에서 탁시도 차림의 악단이 객석을 응시하는 작각마저 든다.

화려한 선율 속 존재감을 발하는 것은 바이올린 협연자 레이첼 포저의 탄주. 소규모 실내악 특성상 지휘자가 없었으나 그녀는 카리스마 있게 활대를 흔들며 마에스트라를 연상시켰다. 소리에 소리를 덧대는 배음, 앙상블이 남긴 잔향, 이날 공연장을 가득 채운 음향은 클래식필의 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29일 오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은 '제35회 이견음악회'를 관람하려는 관객으로 붐볐다. 이견홀딩스가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바흐의 곡 네 편과 헨리 퍼셀, 찰스 에비슨의 협주곡·관현악 모음곡을 만나는 자리였다.

연주는 1979년 토론토에서 창단한 이래 "세계 최고의 바로크 오케스트라 중 하나" (그라모폰)라는 극찬을 받은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맡았다.

본무대에 앞서 중국계 비올리스트 브랜든 추이는 어색한 발음으로 "KIA 타이거즈가 우수한 광주는 지금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라며 "오늘만큼은 바로크 고(古)음악의 선율을 빠져 축제 여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음악으로 교감하기 앞서 한국어, 스포츠를 매개로 관객을 흡인하는 모습이었다.

협연자 면면도 특별했다. 여성 최초로 2015년 왕립음악원 콘 재단 바흐상을 수상한 레이첼 포



이견홀딩스가 '제35회 이견음악회'를 지난 2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쳤다. 바이올린 협연자 레이첼 포저(왼쪽)와 오보이스트 신용천이 연주하는 모습. <이견홀딩스 제공>

저, 한국 최초로 바로크 목관 연주단체 '서울 바로크 앙상블'을 창단한 신용천이 그 주인공. 이들은 '최고', '최초' 등 수식어를 떠나 악단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서곡을 지나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가 울려 퍼질 때, 레이첼은 오랜 호흡을 맞춘 듯 오케



연주를 마친 뒤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협연자가 활대를 들어올리는 모습.

트라에 녹아들었다. 바이올린의 격렬한 레가토(연음)를 콘트라베이스가 받고, 이를 다시 바이올린이 이어가는 구성의 묘가 돋보였다.

이어진 헨리 퍼셀 '요정 여왕' 모음곡은 경쾌한 춤곡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한 여름밤의 꿈'을 바탕으로 만든 세미 오페라인 터라 원곡에는 가부요 요소가 가미되나, 오직 소리에만 집중하는 오케스트라 버전도 매력적이었다.

밝은 분위기의 칸타빌레로 귀를 매료시킨 바흐 '칸타타 BWV42, 신포니아'도 울려 퍼졌다.

이 곡은 바흐가 부활절이 지난 첫 주일 예배를 위해 작곡한 '저녁에, 그러나 같은 안식일에' 중 첫 곡이다. 합창으로 시작하는 일반 칸타타와 달리 도입부가 기억할 수 신포니아로 길게 시작한다.

음악학자 알프레드 두르는 이 구성에 대해 "부활절 주간 후사당한 성가대에 휴식을 주기 위한 바흐의 배려였을 것"이라 추측했다.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환기하듯 장중한 멜로디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안토니 레이헤나우에르 '모음곡 Bb장조'도 들

을 수 있었다. 비발디의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이 악곡은 노래하듯한 선율이 도드라졌다.

이외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전환기 양상을 보여준 찰스 에비슨 '합주 협주곡 6번 D장조'도 감동을 선사했다. 전환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드러내듯 바로크의 동적 표현, 고전주의의 정형화된 형식미가 모두 깃들어 있었다.

라르고(매우 느린 속도)에서 보여준 풍부한 표정 연기와 아다지오(매우 느리게) 선율은 말미의 비바체멘테 대목에 와서 생명력과 폭발력을 보여줬다.

공연은 바흐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c단조'로 끝맺었다. 유실된 바흐의 악보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곡이다.

반복되는 독주와 합주(리토르넬로)로 인해 개인 기량과 합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 무도를 펼치듯 춤을 추는 바이올린 주자들과 오보에의 합, 3박자 춤곡 파사칼리아의 변주와 반복은 헨델이나 할브르센의 그것과 또 다른 이재로움을 선사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영화·TV 음악, 오케스트라로 만난다

울클레프 전남·광주 테마연주회  
11월2일 광주서빛마루문예회관

명작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은 대중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My Heart Will Go On'이, '겨울왕국'에서 'Let It Go'가 연상되는 것은 그 예다.

울클레프 전남·광주(울클레프)가 테마연주회 '챔버오케스트라 31영화&TV 테마들'을 오는 11월 2일 광주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펼친다. 영화, TV음악을 클래식으로 재해석하는 연주회이며 기획 및 연출에 김아람·고지선.

공연은 울클레프 소속 다사라이 앙상블이 피아노 트리오 연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막을 올린다. 1940년 디즈니 '피노키오'에 처음 사용된 뒤 다양한 영화, 드라마 엔딩곡으로 삽입된 'When you wish upon a star'도 레퍼토리에 있다.

밤비노스 아티스타(신예)인 박성성의 슈만 곡 '민속제의 어리광대 Op.26-3.SCHERZINO'는 피아노 솔로로 만난다. 슈만이 1838년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하면서 사육제의 유쾌한 분위기를 담았다.

'디즈니 공주 메들리'는 박해림·이은하의 포렌즈 연주에 실린다. 언어공주 에리엘, 알라딘의 자스민을 비롯해 라퐁젤, 엘사 등 다양한 공주를 주제 삼은 OST를 연주할 예정이다.



'울클레프 전남·광주' 공연 장면. <울클레프 전남·광주 제공>

보컬리스트 정지후는 오케스트라 킨넷과 함께 '마법의 성 더 클래식'을, 강산은 영화 '클래식' 테마곡인 '사랑하면 할수록'과 심규선의 '아래향'을 들려준다.

대미는 울클레프 챔버 오케스트라가 '31 FILM & TV THEMES'로 장식한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총 31편의 곡들을 클래식 선율로 선

사한다. 울클레프 김아람 대표는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TV 속 음악을 클래식으로 표현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피아노, 보컬 및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앙상블을 통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싶다"고 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그 작품 나도 좋아해'

권윤지·손지원 작가 2인전 성료

예술의거리 광주미술관에서 열린 권윤지 작가와 손지원 작가의 2인전이 성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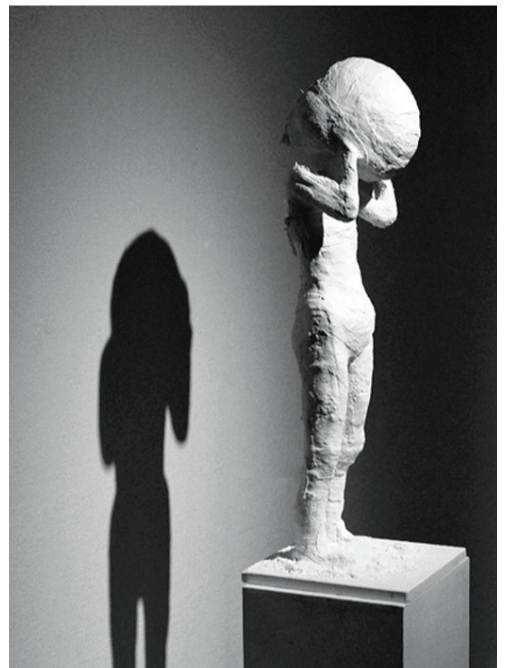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주)뽕뽕브릿지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신진작가 홍보·마케팅지원'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시 주제가 이색적이다. '그 작품 나도 좋아해'는 신진 작가에게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통해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작가 작품은 상반적인 느낌을 줬다. 뽕과 고민에 휩싸인 사람과 막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습은 서로 다른 분위기를 발했던 것.

손지원 작가의 석고붕대 작품 '자유인'은 제목과 달리 무거운 느낌이다. 머리를 싸매고 깊은 고민을 하는 인물은 보는 이에게 답답함을 준다.

이와 달리 손지원 작가의 '함께 빛날 시간'은 수줍음을 헤치고 솟아오르는 해를 조망화했다. 불그스름한 해의 장상이 한낮의 작열하는 시간을 예비해둔 듯하다. 한편으로 현실의 모습 뒤에 감춰진 모습은 다소 호호하다.

최윤미 뽕뽕브릿지 대표는 "2명 작가가 그동안 창작해온 작품을 시민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다"며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 홍수 속에 다소 소외됐던 순수 미술 장르 작품들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권윤지 작 '자유인'

연급한 대로 권윤지 작가 조각 작품은 무겁다. '자유인'은 역설적으로 '자유의 무거움'을 상징한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인물은 차별의 언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차별을 재생산하는 다양한 기제들을 환기한다.

손지원 작가는 풍경 너머 소원하는 장면들을 화폭에 담았다. 내면에 흐르는 시간과 일상에 흐르는 시간이 중첩돼 있어 보는 이에 따라 '함께 빛날 시간'은 심미적으로 재구성될 여지가 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치앙마이 전통공예'

ACC재단, 12월까지 37종 전시

태국 치앙마이는 오랜 문화적 전통이 숨 쉬는 도시다. 지난 2017년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선정됐으며 전통과 장인정신을 계승한 특화 상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의 전통 공예를 현대화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2월까지 ACC 문화상품점에서 쇼케이스를 연다. 치앙마이의 전통 직물 등 37종이 선보이며 일명 '두들락(DO! DLAC) 치앙마이 2024'. ACC 문화상품 브랜드 '들락 DLAC'의 프로젝트 기반 활동으로 기획됐으며 이번 쇼케이스에는 치앙마이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캄 빌리지' 등이 참여한다.

'들락 DLAC'의 프로젝트는 브랜드의 다양성, 차별화를 도모하고 상품을 발굴·개발하는 데 초



치앙마이 쇼케이스 전시 문화상품. <ACC재단 제공>

을 두고 있다. 치앙마이 문화공간인 '캄 빌리지' 외에도 직물 염색 상품을 선보이는 '슬로우스티치 스튜디오', 카렌 및 몽족 등5개 부족의 공예를 소개하는 '파이브 트라이브 페어 트레이드'가 참여한다.

ACC재단은 이들 참여 기관과 협업해 제작한 3개 상품을 비롯해 치앙마이의 전통 직물을 비롯해 천연염색, 전통을 현대화한 제품 등 37종이 관객을 맞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장덕도서관, 11월 1일 한강 노벨문학상 축하 공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해 시낭송과 클래식으로 채워지는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도서관(도서관)이 '시가 흐르는 가을, 시를 품은 소설가 한강'을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 도서관 다목적실(3층)에서 연다. 시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시낭송&토코로 구성된 1부, 클래식 공연으로 채워진 2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도서관 '소통과 힐링 시낭송 인문학반'은 시낭송 무대를 선보인다. 오프닝 공연으로 윤서영의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장시하 작)', 김명희·오숙정의 합송 '멀리서 빈다(나태주)', 가을의 노래(김대규)를 들려준다. 이어 양선숙의 하모니카 연주, 김영이의 '지란 지교를 꿈꾸며(유안진)', 김윤선의 '눈이 부시게(이남규·김수진)' 등을 낭송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에 대해 토크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를 텍스트 삼아 정명숙 등 4인이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에 이미란.

'클래식이 흐르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부 막은 성악가 김명선이 울린다. 김동진의 '내 마음', 모차르트 '밤의 여왕 아리아'로 가을밤을 수놓는다. 성악가 정찬경이 부르는 조성은의 '고독', 차이코프스키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김동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도 레퍼토리에 있다. 첼리스트 윤소희는 엔니오 모리코네 작 '넬라 판타지아'와 시크릿가든 곡 'You raise me up'을 연주한다.

장덕도서관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인 계기가 된 만큼, 지역 도서관에서 이러한 문학적 성취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제2의 한강"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작가와 함께하는 즐거운 글쓰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관람 신청은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또는 광산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최류빈 기자 rubi@